

# 위기 속에 빛나는 엄살라...광주FC 미래 이끈다

(엄원상)

테크닉·마무리 눈에 띄게 좋아져  
K리그1 인천 상대 2골 폭발  
생애 첫 주간 MVP 선정  
수비수 한희훈도 베스트 11에

14라운드 MVP 엄원상(사진)이 광주FC의 뜨거운 8월을 이끈다.

올 시즌 K리그1으로 복귀한 광주가 마침내 주간 MVP를 배출했다. 주인공은 멀티골로 위기의 팀을 구한 '엄살라' 엄원상이다.

엄원상은 지난 1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두 차례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0-1로 뒤진 후반 27분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엄원상은 후반 41분 다시 한번 인천을 울렸다.

이번에는 윌리안의 패스를 받아 상대의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장식했다. 분위기를 이어 펠리페가 후반 45분 쐐기골을 넣으면서 광주의 3-1 역전승이 기록됐다.

박진섭 감독이 경기와 끝난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많은 의미가 있던 승리였다. 광주는 이 경기 전까지 6경기에서 1무 5패로 부진하며 10위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수원삼성을 상대로 벌인 13라운드 경기이자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 경기에서도 0-1패를 기록하는 등 광주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엄원상이 빠른 발을 활용한 역습과 상대 수비진을 위협하는 전방 압박 등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무승을 끊고 7경기 만에 주인공이 됐다.

값진 승리를 이끈 엄원상은 생애 첫 주간 MVP에도 이름을 올리며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엄원상은 "코칭스텝이나 선수단 모두 힘든 시간이었는데 서로 조금만 더 뛰고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섰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는 엄원상은 테크닉과 마무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12번의 슈팅을 날렸고, 이중 3개를 골대 안으로 집어넣었다. 1도움도 기록하고 있다.

엄원상은 "동계훈련에서 감독님이 슈팅이나 마무리, 연계플레이에 대해 1대 1 지도를 많이 해주셨다"며 "한 단계 성장하고 그라운드에서도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결정적인 순간의 활약도 빛난다. 엄원상은 시즌 첫 골이 기록된 4라운드 울산전에서도 주인공이 됐다.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엄원상은 자신의 K리그1 첫 경기에서 출격 11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환호했다. 그리고 이 골로 광주는 개막 후 3연패를 끊고 '난적' 울산을 상대로 시즌 첫 승점을 쟁겼다.

연령별 대표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엄원상은 22세 이하 선수로서도 광주에 중요한 자원이자.

박진섭 감독은 "엄원상이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여주면서 팀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제 몫을 충실히 해줄 선수"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특유의 파이팅과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펠리페의 골을 도운 수비수 한희훈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와 인천의 경기는 14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풀럼 EPL 복귀 환호 풀럼 선수들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웹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의 2019-2020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2-1로 승리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등 위기' 인천의 마지막 카드는 이임생 감독

협상 마무리...오늘 선임 공식 발표

강등 위기에 몰린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카드'는 이임생(49) 전 수원 삼성 감독이었다.

인천 구단은 5일 이임생 감독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새 감독 선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음날 이임생 감독 선임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선임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이 다소 늦어져 발표가 하루 미뤄졌다"고 전했다.

인천은 현재 승리 없이 5무 9패로 최하위에 자리해 있다. 11위 FC서울과 격차가 승점 8점까지 벌어졌다.

지난 6월 팀 최다 7연패 책임을 지고 임원섭 감독이 물러난 뒤 인천은 임중용 수석코치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임 수석코치 체제에서 상주 상무, 전북 현대, 포항 스틸러스 등 상위권 팀들과 잇따라 무승부를 거

두자 구단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달 말까지 새 사령탑을 선임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즌 첫 승을 거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 지난 주말 광주FC전에서 1-3 역전패를 당하자 구단은 새 사령탑을 곧바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황급히 방향을 틀었다. 마침 인천 출신으로 수원 사령탑에서 물러난 이임생 감독이 인천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낼 새 사령탑으로 낙점받았다.

이 감독은 이천수 인천 전력강화실장과 부평동중, 부평고 동문이다. 체중암 판정을 받아 올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내려놓은 유상철 명예감독과는 동갑내기로 막역한 사이다.

이 감독은 2014년 인천과 감독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김봉길 당시 전 감독의 경질 과정에 대한 잡음이 나오면서 감독직을 고사한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수월하게 인천 사령탑에 오른다. 수원에서 물러난 지 불과 3주 만에 K리그1 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인천은 오는 9일 성남FC를 홈인 축구전용구장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승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프로배구, 남자 22일·여자 30일 개막

김연경 복귀전 컵대회 출전 관심  
관중 입장 여부는 확정하지 못해

V리그 조기 종료로 아쉬움을 삼켰던 한국 프로배구가 컵대회로 다시 기지개를 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5일 2020 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남자부는 22일부터 29일, 여자부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제천체육관에서 컵대회를 치른다. 관중 입장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

남자부는 프로 7개 팀에 국군체육부대(상무)가 합류해 8개 팀이 컵대회에 나선다.

지난해 컵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대한항공,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캐피탈이 A조, OK저축은행, 우리카드, 상무, 한국전력이 B조에 편성됐다. 조 1, 2위가 4강에 진출하고, 준결승 승자가 8월 29일에 결승전을 치른다.

여자부는 현대건설, 흥국생명, IBK기업은행이

A조에 묶였고, KGC인삼공사,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가 B조에서 경쟁한다.

여자부는 조별 예선이 끝난 뒤, 조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 예선 탈락하는 팀도 최소 3경기를 치르게 하려는 의도다. 조 1, 2위 팀은 준결승에 오르고, 9월 5일에 결승전을 펼친다.

팬들은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의 국내 복귀전 성사 여부에 관심이 크다.

김연경은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임대 선수로 뛰던 2010년에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KOVO컵에 참가해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티키, 중국 무대에서 세계 최정상급 레프트의 기량을 과시한 김연경이 컵대회에 출전하면 대회 흥행은 확실할 수 있다. 그러나 김연경의 '10년 만의 KOVO컵 출전' 성사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흥국생명에 합류해 팀 훈련 중인 김연경은 지난 달 29일 미디어데이에서 "컵대회 출전을 확인할 수는 없다. 박미희 감독님과 상의하고 상태를 잘 확인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 '디펜딩 챔피언' 나달 올해 US오픈 테니스 불참

"코로나19 제어하지 못해"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나달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는 31일부터 2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나달은 지난해 이 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고, 2010년과 2013년, 2017년에도 우승한 바 있다.

이로써 나달은 US오픈을 건너뛰고 9월 27일 개막 예정인 프랑스 오픈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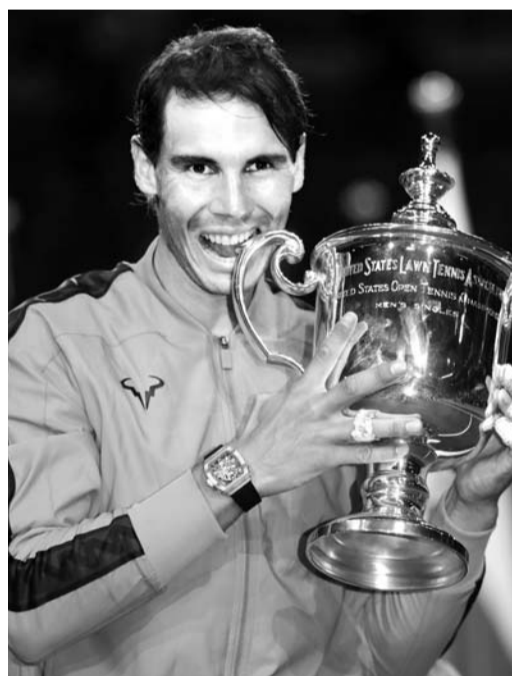
올해 US오픈에는 여자 단식 세계 1위 애슐리 바티(호주)가 이미 불참을 선언했고, 남자 단식의 닉

키리오스(40위·호주) 역시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달과 함께 남자 단식의 '빅3'로 불리는 선수 중에서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만 올해 US오픈에 출전한다.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는 이미 무릎 부상으로 올해 남은 일정에 모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올해 9월 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할 예정이던 남녀 프로 테니스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 오픈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됐다.

남녀 프로 테니스는 올해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하다가 3일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막한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팔레르모 레이디스오픈으로 일정을 재개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막을 올리는 웨스턴 & 서던오픈으로 2020시즌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지난해 US오픈 테니스 대회 우승 뒤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나달.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
| 2관      | 강철비2: 정상회담                   |
| 3관      | 반도                           |
| 4관      | 강철비2: 정상회담                   |
| 5관      |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
| 6관      |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
| 9관      | 강철비2: 정상회담, 블랙아웃: 인베이션 어스    |
| 7관 씨네커틀 | 반도, 애니멀 크래커, 빅사크3: 웰리몬스터 대소동 |
| 8관 씨네커틀 |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베토벤 250시리즈 - NO.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